

한국콘텐츠진흥원 보도자료

배포일 : 2019.06.12(수) / 보도일 : 배포 후 즉시

담당	공정상생지원단 김은정 차장 02.2016.4155 / ejkim@kocca.kr
배포	대외협력실 이하영 대리 061.900.6397 / 010.4427.4939 / hylee0814@kocca.kr

매수: 본문 2매 / 붙임 9매

‘함께하는 세상을 향한 변화의 시선’ 콘텐츠문화예술계 성평등 자치규약 공동 선포

- 콘텐츠, 문화예술계 30개 협단체 참여, ‘성평등 실천 자치규약 선포식’ 개최

콘텐츠 산업과 문화예술계가 한 자리에 모여 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목소리를 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은 12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콘텐츠 및 문화예술계 성평등 문화 확산 실천을 위한 ‘성평등 실천 자치규약 선포식’을 개최했다.

◆ 성희롱·성폭력 피해 방지와 조치를 위한 장르별 자치규약 실천 공동 결의

이번 선포식에는 “함께하는 세상을 향한 변화의 시선”이라는 슬로건 아래 문체부, 콘진원,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 이하 영진위),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 이하 예술인복지재단)과 ▲영화 ▲대중문화(음악, 연예) ▲방송 ▲게임 ▲문화콘텐츠(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패션 등) ▲문화예술(무용, 연극 등)의 콘텐츠 장르 및 문화예술계의 6개 분야 30개의 협단체가 참여하여 성평등 문화확산과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자치규약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성평등 자치규약에는 ▲구성원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성평등 공

동체 지향,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불쾌해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즉시 진심으로 사과, ▲공동체 안에서 성평등을 침해하는 행위 발견 시 중단 요구의 공통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범위 인식, 성적 발언,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금지, 성희롱·성폭력 이슈 발생 시 적극 해결 및 피해 조치 등과 관련한 10개 세부 조항이 구성되어 있어 각 산업 장르별로 필요한 조항을 선택하여 자치규약을 완성했다.

선포식에는 문체부 조현래 콘텐츠정책국장, 콘진원 김영준 원장, 영진위 오석근 위원장, 예술인복지재단 정희섭 대표와 콘텐츠 및 문화예술계 협단체장 등 주요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전 문화예술계가 함께하는 공동 결의에 힘을 더했다. 또한 영화 <나를 잊지 말아요>의 이윤정 감독이 ‘촬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수칙’을, 박영희 연출가가 ‘시카고 극장 규약(CTS) 사례를 활용한 한국 연극계의 자치 규약(KTS) 제작 과정’을 공유하며 각 분야별 성평등을 위한 세부 실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콘진원 김영준 원장은 “성평등 문화는 산업 내 구성원이 모두 함께 성공으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발판”이라며,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를 통해 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성평등성희롱 근절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외협력실 이하영 대리 (061.900.63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성평등 실천 자치규약 선포식 참가 협단체
 - 붙임 2. 성평등 실천 자치규약
 - 붙임 3. 보도 사진
-

장르	단체명	대표자	
대중문화 (5)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회 장	김영진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 장	손성민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회 장	김창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 장	김병찬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회 장	신주학
방송 (5)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	김운경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회 장	허주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회 장	송병준
	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	이미지
	희망연대 방송스태프지부	지부장	김두영
게임 (3)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회 장	정석희
	한국게임산업협회	회 장	강신철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 장	황성익
문화콘텐츠 (애니메이션 캐릭터 패션 민화) (9)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회 장	남진규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회 장	김태경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회 장	조태봉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회 장	유정주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회 장	홍은주
	한국만화가협회	회 장	윤태호
	한국여성만화가협회	회 장	노명희
	웹툰협회	회 장	원수연
	한국웹툰작가협회	회 장	연제원
영화 (3)	한국영화배우협회	회 장	김국현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문상훈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회 장	최정화
예술 (5)	한국음악협회	이사장	이철구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조남규
	한국미술협회	회 장	이범헌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이광복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오태근

■ 콘텐츠 분야 협단체 자치규약 공통 내용

하나, 우리는 구성원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성평등 공동체를 지향한다.
 하나, 의도와 상관 없이 상대방이 불쾌해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즉시 진심으로 사과한다.
 하나, 공동체 안에서 성평등을 침해하는 행위 발견 시 중단을 요구한다.

■ 콘텐츠 분야 협단체 자치규약 선택 내용

번호	자치규약 선택 내용
1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어와 행위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됨을 명심한다.
2	상대방의 외모와 관련된 발언, 성적 농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3	친밀도와 상관없이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함부로 묻거나 말하지 않는다.
4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하고 거부한다.
5	성희롱·성폭력 이슈 발생 시에는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즉시 알린다.
6	성평등을 침해하는 행위 발견 시,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7	피해 발생 시 피해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한다.
8	피해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한다.
9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성평등 캠페인을 진행하여 성평등 인식 개선에 앞장선다.
10	성범죄 처벌 이력이 있는 자 또는 처벌 이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단체는 입회를 거부하여 성폭력 이슈를 사전에 예방한다.

■ 위 3개의 공통항목 포함 장르별 선택항목

- 영화 : 공통 3개 + 선택항목 1~10번 선택
- 방송 : 공통 3개 + 선택항목 1~10번 선택
- 게임 : 공통 3개 + 선택항목 1~8번 선택(9,10번 미채택)
- 대중문화 : 공통 3개 + 선택항목 1,2,4,6,7,8,10번 선택(3,5,9번 미채택)
- 만화(한국만화가협회, 한국여성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 공통 3개 + 선택항목 1,2,3,6,7,8,9,10번 선택(4,5번 미채택)
- 웹툰(웹툰협회) : 공통 3개 + 선택항목 1,2,3,6,7,8,9,10번 선택(4,5,10번 미채택)
- 애캐패 : 공통 3개 + 선택항목 1,2,3,4,5,6번 선택(7,8,9,10번 미채택)

게임 콘텐츠 분야 성평등 실천 자치규약

- 하나. 우리는 구성원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성평등 공동체를 지향한다.
- 하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불쾌해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즉시 진심으로 사과한다.
- 하나. 공동체 안에서 성평등을 침해하는 행위 발견 시 중단을 요구한다.
- 하나.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어와 행위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됨을 명심한다.
- 하나. 상대방의 외모와 관련된 발언, 성적 농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 하나. 친밀도와 상관없이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함부로 묻거나 말하지 않는다.
- 하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하고 거부한다.
- 하나. 성희롱·성폭력 이슈 발생 시에는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즉시 알린다.
- 하나. 성평등을 침해하는 행위 발견 시,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하나. 피해 발생 시 피해자 침 피해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한다.

콘텐츠, 문화예술 분야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응원합니다.

2019. 6. 12.

대중문화 콘텐츠 분야 성평등 실천 자치규약

- 하나. 우리는 구성원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성평등 공동체를 지향한다.
- 하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불쾌해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즉시 진심으로 사과한다.
- 하나. 공동체 안에서 성평등을 침해하는 행위 발견 시 중단을 요구한다.
- 하나.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어와 행위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됨을 명심한다.
- 하나. 상대방의 외모와 관련된 발언, 성적 농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 하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하고 거부한다.
- 하나. 성평등을 침해하는 행위 발견 시,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하나. 피해 발생 시 피해자 침 피해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한다.

콘텐츠, 문화예술 분야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응원합니다.

2019. 6. 12.



만화 콘텐츠 분야 성평등 실천 자치규약

- 하나. 우리는 구성원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성평등 공동체를 지향한다.
- 하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불쾌해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즉시 진심으로 사과한다.
- 하나. 공동체 안에서 성평등을 침해하는 행위 발견 시 중단을 요구한다.
- 하나.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어와 행위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됨을 명심한다.
- 하나. 상대방의 외모와 관련된 발언, 성적 농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 하나. 친밀도와 상관없이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함부로 묻거나 말하지 않는다.
- 하나. 성평등을 침해하는 행위 발견 시,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하나.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및 피해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한다.
- 하나.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성평등 캠페인을 진행하여 성평등 인식 개선에 앞장선다.
- 하나. 성범죄 처벌 이력이 있는 자 또는 처벌 이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단체는 입회를 거부하여 성폭력 이슈를 사전에 예방한다.

콘텐츠, 문화예술 분야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응원합니다.

2019. 6. 12.

웹툰 콘텐츠 분야 성평등 실천 자치규약

- 하나. 우리는 구성원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성평등 공동체를 지향한다.
- 하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불쾌해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즉시 진심으로 사과한다.
- 하나. 공동체 안에서 성평등을 침해하는 행위 발견 시 중단을 요구한다.
- 하나.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어와 행위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됨을 명심한다.
- 하나. 상대방의 외모와 관련된 발언, 성적 농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 하나. 친밀도와 상관없이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함부로 묻거나 말하지 않는다.
- 하나. 성평등을 침해하는 행위 발견 시,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하나.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및 피해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한다.
- 하나.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성평등 캠페인을 진행하여 성평등 인식 개선에 앞장선다.

콘텐츠, 문화예술 분야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응원합니다.

2019. 6. 12.

방송 콘텐츠 분야 성평등 실천 자치규약

- 하나. 우리는 구성원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성평등 공동체를 지향한다.
- 하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불쾌해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즉시 진심으로 사과한다.
- 하나. 공동체 안에서 성평등을 침해하는 행위 발견 시 중단을 요구한다.
- 하나.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어와 행위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됨을 명심한다.
- 하나. 상대방의 외모와 관련된 발언, 성적 농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 하나. 친밀도와 상관없이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함부로 묻거나 말하지 않는다.
- 하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하고 거부한다.
- 하나. 성희롱·성폭력 이슈 발생 시에는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즉시 알린다.
- 하나. 성평등을 침해하는 행위 발견 시,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하나.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및 피해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한다.
- 하나.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성평등 캠페인을 진행하여 성평등 인식 개선에 앞장선다.
- 하나. 단체는 성범죄 처벌 이력이 있는 자 또는 처벌 이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제작사는 입회를 거부하여 성폭력 이슈를 사전에 예방한다.

콘텐츠, 문화예술 분야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응원합니다.

2019. 6. 12.



애니 · 캐릭터 · 패션 콘텐츠 분야 성평등 실천 자치규약

- 하나. 우리는 구성원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성평등 공동체를 지향한다.
- 하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불쾌해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즉시 진심으로 사과한다.
- 하나. 공동체 안에서 성평등을 침해하는 행위 발견 시 중단을 요구한다.
- 하나.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어와 행위는 성희롱 · 성폭력에 해당됨을 명심한다.
- 하나. 상대방의 외모와 관련된 발언, 성적 농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 하나. 친밀도와 상관없이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함부로 묻거나 말하지 않는다.
- 하나. 성희롱 · 성폭력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하고 거부한다.
- 하나. 성희롱 · 성폭력 이슈 발생 시에는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즉시 알린다.
- 하나. 성평등을 침해하는 행위 발견 시,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콘텐츠, 문화예술 분야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응원합니다.

2019. 6. 12.



영화 분야 성평등 실천 자치규약

- 하나. 우리는 구성원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성평등 공동체를 지향한다.
- 하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불쾌해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즉시 진심으로 사과한다.
- 하나. 공동체 안에서 성평등을 침해하는 행위 발견 시 중단을 요구한다.
- 하나.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어와 행위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됨을 명심한다.
- 하나. 상대방의 외모와 관련된 발언, 성적 농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 하나. 친밀도와 상관없이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함부로 묻거나 말하지 않는다.
- 하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하고 거부한다.
- 하나. 성희롱·성폭력 이슈 발생 시에는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즉시 알린다.
- 하나. 성평등을 침해하는 행위 발견 시,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하나. 피해 발생 시 피해자 침 피해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한다.
- 하나.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성평등 캠페인을 진행하여 성평등 인식 개선에 앞장선다.
- 하나. 성범죄 처벌 이력이 있는 자 또는 처벌 이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단체는 입회를 거부하여 성폭력 이슈를 사전에 예방한다.

영화, 문화예술 분야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응원합니다.

2019. 6. 1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계 성평등 실천 자치규약

- 하나. 우리는 구성원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성평등 공동체를 지향한다.
- 하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불쾌해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즉시 진심으로 사과한다.
- 하나. 공동체 안에서 성평등을 침해하는 행위 발견 시 중단을 요구한다.
- 하나.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어와 행위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됨을 명심한다.
- 하나. 상대방의 외모와 관련된 발언, 성적 농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 하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하고 거부한다.
- 하나. 성희롱·성폭력 이슈 발생 시에는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즉시 알린다.
- 하나. 성평등을 침해하는 행위 발견 시,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하나. 피해 발생 시 피해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 하나. 피해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한다.

예술계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응원합니다.

2019. 6. 12.

